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편찬·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Unho Im Jeongju's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Yunjidangyugo, His Composition of the Woodblock Types and
Their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간행을 위한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 |
| 2. 운호 임정주의 생애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편찬·간행 | 3.1 목활자의 조성 |
| 2.1 운호 임정주의 생애 | 3.2 목활자의 서지적 특징 |
| 2.2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편찬·
간행 | 4. 결 론
<참고문헌> |

< 초 록 >

이 글은 운호 임정주가 편찬·간행한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와 간행에 사용되었던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을 밝힌 것이다.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는 조선 영·정조대의 성리학자로 학문의 연원은 조선 후기 율곡계(栗谷系) 기호학과파(畿湖學派)의 주기파(主氣派)이며, 스승은 둘째 형인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이고, 임윤지당(任允摯堂)은 그의 누이이자 학문적인 동지이다. 그는 임윤지당이 그에게 남긴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초간본을 재편집하여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을 간행하기 위해 조성했던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목활자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본 결과 목활자 조성의 주관자는 임정주이고, 목활자의 일차 조성목적은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을 간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성처는 청산현이고, 조성시기는 임정주가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재직하고 있던 정조 13년(1789)부터 정조 19년(1795)까지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목활자는 조성자의 이름을 붙여 ‘임정주목활자’로 명명하였다.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간행에 사용된 ‘임정주목활자’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표집된 어조사의 샘플인 ‘지(之), 불(不), 기(其), 위(爲), 이(而), 아(也), 호(乎), 이(以), 재(哉)’에서는 안진경의 필체를 근간으로 하여 그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으며, 그중 어(於)자는 안진경이 즐겨 쓰던 속자인 여(於)의 자형으로 쓰이지 않았고, 이(而)자의 마지막 삐침획과 재(哉)자의 오른쪽 긴 파임획에서 몇부림의 기교가 나타났다. 임정주의 글씨체 중 몇부림의 독창적인 글씨체는 첫째, 세로획 또는 파임을 길게 해서 끝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듯한 기교를 부린 것들이 있는데, 칙(則), 씨(氏), 민(民), 아(我), 이(已) 등이고, 둘째, 필(必)자는 획순의 본래 순서에 관계없이 필획의 순서를 바꾸어 두 가지의 독창적인 글씨체를 구현하였으며, 셋째, 글씨를 쓸 때 여러 개의 점이 병렬하게 되면 갈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몇 점을 반대 형세로 찍거나 자획의 방향을 바꾼 것은 안(顔)자, 술(率)자 등이

* 본 연구는 2014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4년 9월 10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있고, 락(樂)자는 좌측 부수 요(攴)에서 마지막 획을 생략해서 쓰기도 하고, 응(凝)자는 이체자로 표기한 것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향후 서지학 분야의 연구는 물론 인쇄문화사, 민간목활자 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임정주, 운호 임정주, 임윤지당,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임정주목활자

<ABSTRACT>

This paper brings to light the composition and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woodblocks used to publish *Yunjidangyugo* (允摯堂遺稿), the work compiled and published by Unho Im Jeongju. Unho Im Jeongju (任靖周, 1727~1796) was a Neo-Confucian scholar in Yeongjo's and Jeongjo's reign of Joseon, whose academic origins lay in the late Joseon Yulgok faction's semiotics branch of cosmo-ontology. His teacher was his second older brother Nokmun Im Seongju while his elder sister Im Yunjidang was his academic companion. He re-edited the original manuscript of *Yunjidangyugo* left to him by Im Yunjidang, and published it with the woodblocks he had formed to publish Collected Works of Nokmun (*Nokmunseonsaengmunjib*).

The woodblock types were created mainly by Im Jeongju with the primary purpose of publishing Collected Works of Nokmun. He composed them in Cheongsanhyeon during what is estimated as between the thirteenth year and the nineteen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1789~1795) when Im Jeongju was serving as governor there. Consequently, the woodblock types were named "Im Jeongju Woodblocks" after their composer.

An examination of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Im Jeongju Woodblocks" used in the publication of *Yunjidangyugo* reveals that the classical Chinese particle samples ji(之), bul(不), ghi(其), wi(爲), i(而), ya(也), ho(乎), i(以) and jae(哉) were based on Yan Zhenqing's writing, skillfully reviving its characteristics. However, the character eo(於) does not use the simplified phono-semantic character as often used by Yan Zhenqing. Also, the last left-falling stroke of the character i(而) and the long right-falling stroke on the right side of the character jae(哉) show great virtuosity. There are three original calligraphic styles in Im Jeongju's writing. First, he shows virtuosity in elongating the vertical strokes or right-falling strokes and lifting the edge ever so slightly, as he does with characters such as chig(則), ssi(氏), min(民), a(我) and i(已). Secondly, he creates two unique kinds of writing by composing his own stroke order for the character pil(必) rather than following the original order. Thirdly, he avoided making the characters similar when several dots in the character lined up and so marked some dots in the opposite layout or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strokes as he did with the characters an(顏), sol(率) and others, and he omitted the last stroke for the left additional element yo(攴) when forming the character rak(樂) while writing the character eung(凝) as a variant form.

This study will henceforward be used in the basic studies of bibliography as well as in those of the history of printing culture and folk woodblock printing.

Key words: Im Jeongju, Unho Im Jeongju, Im Yunjidang, *Yunjidangyugo*, Im Jeongju Woodblocks

1. 서론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는 조선조 후기 영조와 정조시기의 대표적인 주기와 성리학자이다. 그는 조선조 6대 성리학자로 불리는 형인 임성주(任聖周)의 율곡계 주기학과 학맥을 계승하였다. 그는 형 임성주와 학맥을 같이 하였지만, 형의 학설인 ‘理氣同實, 心性一致’의 학설 중 ‘心性一致’에 중심을 두어 본체론보다는 심성론에 집중하였다. ‘心(明德)은 氣의 精爽’이라고 한 주자학의 심론(心論)을 전제로 삼아 청탁부제(淸濁不齊)한 기품(氣稟)이 아니라 성(聖)과 범(凡)의 구별 없이 본체의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심체의 존재를 입증하고 바르게 보존하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였다.

임정주는 36세이던 영조 38년(1762)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46세이던 영조 48년(1772) 동몽교관을 거쳐 시직(侍直)을 지내고, 47세인 영조 49년(1773)부터 50세인 영조 52년(1776)까지 서연관(書筵官)의 지위에 있으면서 세손(世孫: 뒤의 정조)에게 진취적인 경세관을 강론했다. 그 후 전생서(典牲署)의 주부(主簿), 송화(松禾, 지금의 황해도 송화군) 현감, 온릉령(溫陵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중종 원비 端敬王后 愼氏의 능)을 거쳐 63세인 정조 13년(1789)부터 69세인 정조 19년(1795)까지 청산(靑山, 지금의 충북 옥천군 청산면)의 현감을 지냈다.

그는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있었던 정조 13년(1789)부터 정조 19년(1795)까지 스스로 조성한 목활자를 만들어 그의 아버지 임적(任適, 1685~1728)의 『노은집(老隱集)』을 비롯하여 둘째형인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늑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셋째 형인 임경주(任敬周, 1718~1745)의 『청천자고(靑川子稿)』를 간행하였고, 청산현감에서 물러난 이듬해인 정조 20년(1796)에 그의 누이인 임윤지당의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를 편찬·간행하였다.

현재까지 임윤지당의 연구는 『윤지당유고』에 근거하여 생애와 평전, 철학사상 및 성리학 등에 집중되어 왔고, 최근에 이루어지는 연구도 대부분 기존 자료에 의거하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 지난번에 필자는 임윤지당의 서간 「배송중씨남귀

서(拜送仲氏南歸序)」를 새로 발굴하여 “任允摯堂의 送序文『拜送仲氏南歸序』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¹⁾

이번에는 운호 임정주가 편찬·간행한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와 간행에 사용되었던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운호 임정주의 생애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편찬·간행,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간행을 위한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운호 임정주가 편찬·간행한 문집들과 간행에 사용했던 목활자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일련의 작업 중의 하나이며, 향후 서지학 분야의 연구는 물론 인쇄문화사, 민간목활자 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운호 임정주의 생애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편찬·간행

2.1 운호 임정주의 생애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의 본관은 풍천(豊川)이고 아버지는 함흥판관을 지낸 노은(老隱) 임적(任適, 1685~1728)이며 어머니는 파평윤씨 윤부(尹扶)의 딸이다. 자는 치공(耨恭), 호는 운호(雲湖)이다. 조선후기 대성리학자였던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1711~1788)와 여류 성리학자였던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의 동생이다.

임정주는 영조 3년(1727)에 서울 송현방(松峴坊)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이듬해인 영조 4년(1728)에 부친이 작고하였다. 영조 5년(1729)에 청주의 옥화(玉華)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둘째 형인 임성주에게서 유교경전과 역사책을 공부하였다. 임정주가 11세이던 영조 13년(1737)에 임정주 일가는 조상들의 선영이 있던 여주(驪州)로 이사하였고, 17세기

1) 강순애, “任允摯堂의 送序文『拜送仲氏南歸序』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91-118.

던 영조 19년(1743)에 다시 서울로 이거하였다. 그는 36세이던 영조 38년(1762)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46세이던 영조 48년(1772) 동몽교관을 거쳐 시직(侍直)을 지내고, 47세인 영조 49년(1773)부터 50세인 영조 52년(1776)까지 서연관(書筵官)의 지위에 있으면서 세손(世孫: 뒤의 정조)에게 학문을 강론했다. 정조가 즉위한(1776) 뒤 홍국영(洪國榮)의 세도정치에 밀려나 관직을 떠나 있다가 59세인 정조 9년(1785)에 전생서(典牲署)의 주부(主簿)의 직을 맡았고, 60세인 정조 6년(1786)에 송화(松禾, 지금의 황해도 송화군) 현감이 되었다. 61세인 정조 7년(1787) 온릉령(溫陵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중종 원비 端敬王后 愼氏의 능)이 되었으며 63세인 정조 13년(1789)부터 69세인 정조 19년(1795)까지 청산(靑山, 지금의 충북 옥천군 청산면)의 현감을 지냈다. 이듬해인 정조 20년(1796)에 70세로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임정주의 학문은 형인 임성주와 그 맥락을 같이 하였다.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학문은 임정주가 지은 『중씨녹문선생행장(仲氏鹿門先生行狀)』(1794)에 의하면, 16세에 율곡의 글을 보고 큰 뜻을 세웠으며, 19세에 도암(陶庵) 이재(李紱)의 제자가 되었고, 간간이 벼슬을 하였지만 공주 녹문(鹿門)에 은거하면서 경전 공부에 전념하였다. 도암 이재의 제자로 송명흠(宋明欽), 송문흠(宋文欽), 송능상(宋能相), 윤봉구(尹鳳九), 민우수(閔遇洙), 김원행(金元行), 이민보(李敏輔), 신소(申韶) 등과 교류하였다.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에서 성론(性論)의 경우에는 스승의 동론(同論)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호론(湖論)의 이론(異論)을 받아들였고, 심론의 경우에는 스승의 성범심동론(聖凡心同論)을 고수하였다. 그는 율곡계를 이은 기호학파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 권상하(權尙夏), 한원진(韓元震, 1682~1750)으로 계승되는 주기파를 발전시켜 기일분수설(氣一分殊說)을 통해 이기(理氣)를 기일원론적(氣一元論的) 관념으로 통일함으로써 조선유학사상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임정주는 형 임성주의 학설인 ‘理氣同實, 心性一致’의 학설을 따랐지만 후자인 ‘心性一致’에 중심을 두어 본체론보다는 심성론에 집중되었다. 사물의 ‘性’과 인간의 ‘心’은 보편적인 ‘理’와 구별되는 구체성을 띠며, 구체성의 발현은 ‘氣’의 작용을

매개로 하여 드러난다고 하였다. 다만 ‘心(明德)은 氣의 精爽’이라고 한 주자학의 심론(心論)을 전제로 삼아 청탁부제(淸濁不齊)한 기품(氣稟)이 아니라 성(聖)과 범(凡)의 구별 없이 본체의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심체의 존재를 입증하고 바르게 보존하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였다.²⁾

그가 교류한 인물들은 『운호집(雲湖集)』에 실려 있는 서간을 참조하면, 김지행(金砥行, 1716~1774), 송시연(宋時淵), 김희(金熹, 1729~1800), 박윤원(朴胤源, 1734~1799), 이상재(李象載), 송기정(宋基鼎, 1771~?), 임로(任魯, 1755~1828), 송명흠(宋明欽, 1705~1768), 김상진(金相進, 1736~1811), 임욱(任焄, 1736~?), 곤암(困庵) 김상무(金相茂, ?~1786), 이민보(李敏輔, 1720~1799), 송치연(宋致淵), 이홍재(李洪載, 1727~1794), 송수연(宋守淵, 1745~?), 이광실(李光實), 이광주(李光胄), 김기서(金基胥), 송계간(宋啓幹), 임성주(任聖周, 1711~1788), 임창주(任昌周), 임묵(任默), 임(任) 형제(이름은 모름), 임지상(任持常) 등이다.

저서로는 순조 17년(1817)에 그의 아들 임결(任杰)이 간행한 『운호집(雲湖集)』 6권 3책이 남아 있는데, 서문은 없으며 권두에 총목차가 있고, 각 책마다 앞부분에 상세목차가 있다. 권1·2에 서(書) 45편, 권3·4에 록(錄) 2편, 잡저 4편, 권5에 설(說) 1편, 잡저 4편, 기(記) 3편, 발(跋) 4편, 고문 3편, 제문 3편, 권6에 묘지명 2편, 행장 1편, 유사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끝에는 족질 임로(任魯)가 지은 발문이 붙어 있다.

2.2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편찬·간행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편찬은 임윤지당과 임정주 및 그녀의 시동생인 신광우(申光祐, 1726~1798)³⁾에 의해 이루어졌고, 간행은 임정주에 의해 이루어

2) 金炫, “雲湖 任靖周의 理氣心性論,” 『東洋哲學研究』 제14집(1993), 209-213.

3) 신광우(申光祐, 1726~1798)는 본관(本貫)은 평산(平山)이며, 거주지는 원주(原州)이다. 정조(正祖) 1년(1777)에 증광시(增廣試) 병과에 합격하였다. 벼슬은 대사간(大司諫)을 하

졌다.

임정주의 『운호집(雲湖集)』 권5에 실린 임정주의 「자씨윤지당고발(姉氏允摯堂稿跋)」을 참조하면, ‘…嗚呼 此吾姊申氏婦所述也 本四十編而刪爲三十編 追入又五十編 總三十有五編矣… 今日印行 抑亦天意也…’라 하여 임윤지당이 직접 초고본을 작성한 것은 40편인데, 임윤지당이 죽은 3년 후인 정조 20년(1796)에 임정주가 30편으로 줄였다가 다시 5편을 추가하여 35편으로 최종 편차하였고, 임정주가 제작한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편집과 간행에 있어서 임윤지당의 시동생인 신광우(申光祐, 1726~1798)도 남아있는 유고를 찾아 임정주에게 보내고 문집 끝에 붙인 발문을 썼다.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상권에는 전(傳) 2편, 논(論) 11편, 발(跋) 2편, 설(說) 6편으로 총 21편이다.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하권에는 잠(箴) 4편, 명(銘) 3편, 찬(贊) 1편, 제문(祭文) 3편, 인(引) 1편, 경의(經義) 2편으로 하권은 14편이다. 상·하권에 총 35편이 수록되었다. 부록에 「언행록(言行錄)」 19조, 「유사(遺事)」 16조, 「발문(跋文)」 2편(申光祐, 任靖周)이 실려 있다.⁴⁾

이 책의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및 개인소장 등에 완질본이 남아 있다.

3.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간행을 위한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

운호 임정주는 정조 13년(1789)부터 정조 19년(1795)까지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있으면서 정조 18년(1794)에 아버지 임적(任適, 1685~1728)의 시문집인 『노은집(老隱集)』 4권, 부록, 합 2책과 셋째 형인 임경주(任敬周, 1718~1745)의 시문집인 『청천자고(靑川子稿)』 3권 1책을 간행하였다. 정조 19년(1795)에

였다. 임윤지당의 남편인 신광유(申光裕)의 남동생이다.

4) 강순애, “任允摯堂의 送序文 「拜送仲氏南歸序」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97-100에 문집 분석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그의 둘째 형 임성주의 문집인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26권, 부록, 합 13책을 간행하였고, 청산현감 직을 그만 두고 이듬해인 정조 20년(1796)에 그의 누이인 임윤지당의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 1책을 간행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문집에 간행된 목활자의 조성과 관련된 조성자, 조성목적, 조성처, 조성시기에 대해 살펴보고,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에 나타나는 목활자들의 서지적 특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목활자의 조성

이 장에서는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간행을 위한 목활자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인 조성자, 조성목적, 조성처, 조성시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임정주가 목활자를 조성한 것은 그의 형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편찬·간행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임성주가 정조 12년(1788)에 돌아가 시자 바로 그해부터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편찬과 관련한 유고를 수집·정리하고 초안의 작성을 진행하면서 조카들과 실무에 대한 상의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조카 임묵(任默)에게 보낸 서신 중에 『운호집(雲湖集)』 권2 「여종질묵(與從姪默)」(戊申, 1788)에 보면, ‘… 遺集已始草本書役 家狀亦不可不汲汲草成 … 可收於文集者 亦一一考出 或送原本 或飜書以送 皆無妨此事 亦報於西湖麟蹄聖用諸處如何’라 하여 유집의 초본(草本)을 베껴 쓰는 작업을 벌써 시작했고, 가장초(家狀草)도 빨리 초안을 만들 것이라 했으며, 문집에 수록할 만한 것을 찾아서 일일이 고출하여 원본을 보내주거나 초본을 보내주도록 여러 곳에 부탁하도록 하였다. 또 하나는 조카 임로(任魯)에게 보낸 서신 중에 『운호집(雲湖集)』 권2 「여종질노(與從姪魯)」(甲寅, 1794)에 보면, ‘… 鹿門集 託宋姪時然金友相進 盡意刪節 而似不下十四五卷印役… 天若延我數年之命 則若干所費 略留意鑄字之役 行且告訖 可以成吾之志…’라 하여 『녹문집』은 송시연과 김상진에게 부탁하여 산절(刪節)하였고, 인역(印役)은 14권에서 15권으로 추산하였다. 뒤에는 임정주 자신에게 몇 년의 세월이 더 주어진다면 활자를 만들

어 간행사업을 마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간행에 대한 기록은 문집의 부록(附錄)에 실린 임정주가 쓴 녹문의 행장(行狀)(1794)을 보면, ‘… 遂爲之編修遺集二十六卷 印活字若干本 與士友共 …’이라 하여 임정주가 편수하여 활자로 약간 본을 인출하여 사우(士友)들과 나누어 가진다고 하였고, 이민보(李敏輔) 서문(1794) 끝에 보면, ‘… 公沒之七年 其季靖周得湖中小邑 乃能辦活字 并印四稿 亦一奇事也 …’라 하여 임정주가 죽은 지 7년 되는 해에 그 막내동생 정주가 청산현감이 되어 활자를 만들고 네 종류의 문집을 간행하니 또한 기이한 일이라 하였으며, 문집 끝에 붙은 임육의 발문은 정조 19년(1795) 5월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면, 임정주는 형인 녹문 임성주가 정조 12년(1788)에 돌아가시자 바로 그해부터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유고의 편찬을 시작했고, 유집의 초본을 베껴 쓰는 작업을 했는데, 이는 편차뿐만 아니라 간행을 위한 초본 작성과 교정에 대비토록 한 것이다. 교정은 여러 문인들이 했지만 송시연(宋時淵)과 김상진(金相進)에게 주로 부탁하여 산절(刪節)하도록 하였다. 산절(刪節)이 끝난 초본은 정고본을 만들어 활자를 만들기 위한 저본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편집 기간은 7년을 소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임정주의 주도로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은 편찬을 마치고, 직접 조성한 목활자로 본집은 원집 26권, 부록 합 13책으로 간행되었다. 권두에 이민보(李敏輔)의 서문과 범례(凡例), 총목(總目)이 있고, 책마다 권수에 목록이 실려 있으며, 부록에는 동생 임정주가 지은 행장이 실려 있고, 권미에는 종질(從姪) 임육(任焞)이 지은 발문이 붙어 있다.

임정주는 정조 12년(1788)부터 7년간의 편찬을 진행하면서 이미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편찬과 함께 목활자를 조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정조 18년(1794)에 이미 아버지 임적(任適, 1685~1728)의 시문집인 『노은집(老隱集)』 4권, 부록, 합 2책과 셋째 형인 임경주(任敬周, 1718~1745)의 시문집인 『청천자고(靑川子稿)』 3권 1책을 간행하였고, 이어 정조 19년(1795)에 그의 둘째 형 임성주의 문집인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26권, 부록, 합 13책을 간행

하였으며, 청산현감 직을 그만 두고 이듬해인 정조 20년(1796)에 그의 누이인 임윤지당의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 1책을 간행하였기 때문이다.

목활자의 조성처는 임정주가 청산현감으로 있던 시기에 청산현(靑山縣)⁵⁾ 관아임이 틀림없다. 그가 이 작은 고을에서 활자를 만들기 위해 재정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녹문 임성주의 문인과 집안에서 상당 부분의 재정지원이 있었을 것이고, 청산현에서 일부 지원을 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조성시기는 문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문집의 편찬 간행과 관련된 시기를 참조할 수 있다. 임정주는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재직하고 있던 정조 13년(1789)부터 간행을 위한 활자 조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활자를 만들었다. 그는 정조 18년(1794)에 아버지 임적(任適, 1685~1728)의 시문집인 『노은집(老隱集)』 4권, 부록, 합 2책과 셋째 형인 임경주(任敬周, 1718~1745)의 시문집인 『청천자고(靑川子稿)』 3권 1책을 간행하면서 사용해 보고, 이어 정조 19년(1795)에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26권, 부록, 합 13책의 거질을 간행하였다. 또한 청산현감을 퇴임한 이듬해인 정조 20년(1796)에 그의 누이 임윤지당의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 1책을 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활자의 조성시기는 청산현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정조 13년(1789)부터 정조 19년(1795)까지로

5) 한국고전번역원(2013). 한국고전종합 DB. [검색일자 2014. 7. 29.]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JO&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JO&jwId=kda_400&moId=&daId=&gaLid=kda_40005002_018&gaId=&yoId=&iId=&leId=&NodeId=jo_k-kda&setid=1413653&Pos=0&TotalCount=6&vipyunid=kda_4008>. 청산현(靑山縣)은 『국역왕조실록(國譯王朝實錄)』 5집 『세종지리지(世宗地理誌)』 충청도 / 청주목 / 청산현조에 의하면, ‘청산현(靑山縣)은 본래 신라의 굴산현(屈山縣)인데, 경덕왕(景德王)이 기산현(耆山縣)으로 고쳐서 삼년군(三年郡)의 영현(領縣)으로 붙였고, 고려가 청산(靑山)으로 고쳐서 상주(尙州) 임내(任內)에 붙였는데, 공양왕(恭讓王) 2년 경오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고 상주(尙州)에 딸린 주성부곡(酒城部曲)을 떼어 이에 예속(隸屬)시켰다가, 기묘에 다시 상주에 붙이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3년 계미에 다시 감무(監務)를 두고, 14년 갑오에 황간(黃澗)에 합쳐서 황청현(黃靑縣)이라 하다가, 16년 병신에 다시 청산 현감(靑山縣監)으로 하였다. 딸린 소(所)가 1이니, 계은천(界銀川)이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상주에 이르기 11리, 서쪽으로 옥천(沃川)에 이르기 16리, 남쪽으로 영동(永同)에 이르기 10리, 북쪽으로 보은(報恩)에 이르기 16리이다.’ 라고 하였다.

추정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목활자 조성의 주관자는 임정주이고, 목활자의 일차 조성목적은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을 간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성처는 청산현이고, 조성시기는 임정주가 청산현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정조 13년(1789)부터 정조 19년(1795)까지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목활자는 조성자의 이름을 붙여 ‘임정주목활자’로 명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3.2 목활자의 서지적 특징

임정주가 주도한 4종류의 문집 중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⁶⁾에서 활자의 샘플들을 포집하여 어조사 활자체와 멋부림의 독창적 글자체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2.1 어조사 활자체

어조사는 10개의 샘플들을 표집하고 세로 × 가로의 크기를 제시해서 나열해 보면, 지(之, 0.9 × 1.2cm), 불(不, 0.9 × 1.1cm), 기(其, 0.9 × 1.2cm, 1.0 × 1.2cm), 위(爲, 1.1 × 1.2cm, 0.9 × 1.2cm), 이(而, 0.8 × 1.1cm, 0.8 × 1.2cm), 야(也, 0.8 × 1.3cm), 어(於, 0.8 × 1.3cm, 0.9 × 1.3cm), 호(乎, 1.1 × 1.2cm, 1.0 × 1.2cm), 이(以, 0.8 × 1.2cm, 0.8 × 1.0cm), 재(裁, 戔의 俗字, 1.1 × 1.3cm, 1.2 × 1.2cm) 등이다. 이들 활자들을 <표 1>과 <표 2>로 작성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6) 允摯堂遺稿 / 任允摯堂(朝鮮)著. - 任靖周木活字本. -

靑山: 任靖周, 正祖20年(1796)

1冊(87張): 四周雙邊, 半郭 21.8×17.1cm, 10行 20字 注雙行, 上1葉花紋魚尾; 32×20.5cm

跋: 申光祐, 任靖周

個人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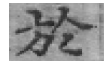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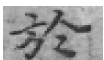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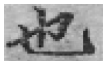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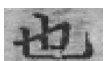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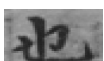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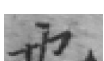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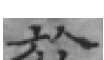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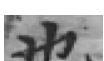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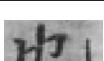




<표 1> 윤지당유고의 목할자 중 어조사(之, 不, 其, 爲, 而) 샘플의 예

구분	之	不	其	爲	而
1)	 (上-1-전-5-13)	 (上-1-전-5-18)	 (上-1-전-5-11)	 (上-1-전-9-9)	 (上-1-후-3-17)
2)	 (上-4-전-8-20)	 (上-3-전-4-7)	 (上-3-전-4-13)	 (上-3-전-5-5)	 (上-3-전-6-12)
3)	 (上-8-후-5-2)	 (上-5-전-6-9)	 (上-9-전-8-14)	 (上-9-전-7-4)	 (上-4-후-10-19)
4)	 (上-24-후-1-1)	 (上-11-전-9-6)	 (上-12-후-4-6)	 (上-11-전-2-5)	 (上-5-전-2-13)
5)	 (上-26-전-2-7)	 (上-13-전-9-5)	 (上-14-후-7-18)	 (上-16-후-1-14)	 (上-9-전-8-12)
6)	 (上-27-후-9-15)	 (上-15-전-8-12)	 (上-19-후-10-17)	 (上-19-전-8-5)	 (上-11-전-6-15)
7)	 (上-32-후-2-19)	 (上-21-전-7-17)	 (上-24-전-8-7)	 (上-23-전-7-3)	 (上-21-후-4-7)
8)	 (上-34-후-8-6)	 (上-29-전-1-15)	 (上-24-후-6-9)	 (上-36-후-3-4)	 (上-25-전-4-10)
9)	 (上-40-전-9-9)	 (上-43-전-7-14)	 (上-34-후-2-15)	 (上-39-후-1-17)	 (上-32-전-3-14)
10)	 (上-45-후-6-8)	 (上-46-후-8-2)	 (上-41-전-8-9)	 (上-45-후-3-14)	 (上-46-후-2-13)

※上-1-전-5-13(상권 1장 전면 5행 13열을 의미함)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편찬·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표 2> 윤지당유고의 목활자 중 어조사(也, 於, 乎, 以, 哉) 샘플의 예

구분	也	於	乎	以	哉
1)	 (上-1-전-1-12)	 (上-1-전-10-7)	 (上-1-전-10-14)	 (上-1-전-7-12)	 (上-1-전-10-17)
2)	 (上-3-전-10-7)	 (上-3-전-6-9)	 (上-6-전-4-6)	 (上-3-전-3-4)	 (上-3-전-5-12)
3)	 (上-10-후-4-7)	 (上-5-전-4-9)	 (上-9-전-9-15)	 (上-6-전-10-3)	 (上-10-후-9-10)
4)	 (上-13-후-5-13)	 (上-12-전-5-5)	 (上-14-후-6-4)	 (上-12-전-3-10)	 (上-15-전-2-18)
5)	 (上-15-전-5-7)	 (上-27-전-10-18)	 (上-27-후-7-14)	 (上-16-전-3-14)	 (上-20-전-5-9)
6)	 (上-26-후-3-16)	 (上-31-후-2-17)	 (上-28-후-7-7)	 (上-31-후-3-15)	 (上-23-전-4-2)
7)	 (上-27-전-10-12)	 (上-36-전-5-10)	 (上-36-전-3-13)	 (上-42-후-3-10)	 (上-23-후-6-2)
8)	 (上-27-후-1-11)	 (上-38-전-4-5)	 (上-36-후-1-20)	 (上-44-전-10-9)	 (上-35-전-2-5)
9)	 (上-28-전-6-1)	 (上-39-전-9-20)	 (上-40-전-5-1)	 (上-44-후-10-3)	 (上-36-전-10-8)
10)	 (上-32-후-4-7)	 (上-44-전-4-2)	 (上-46-후-1-12)	 (上-47-전-8-1)	 (上-45-후-7-20)

위의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之)자는 점획(側), 가로획(勒), 왼쪽 빼침(左掠), 오른쪽 파임(右波)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자형이 모두 비슷하지만, 3)번의 之가 가장 안진경체에 가깝다. 다른 지(之)자들도 글자형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비슷하다.

둘째, 불(不)자는 가로획(勒)이 약간 굽은 듯 하고, 가로획의 폭이 아래의 왼쪽 빼침과 오른쪽 점획 간의 폭과 대체로 같다. 안진경체의 특징이 살아 있는 것은 4) 不, 6) 不, 9) 不, 10) 不의 글자이다.

셋째, 기(其)자는 아래에서 약간 위로 향하는 듯한 가로획(勒)의 필세와 곧게 세워진 세로획(努)의 필세가 서로 중첩되면서 교차하는 맛을 드리우는 글자로 자형은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그중 안진경체의 특징이 가장 살아 있는 것은 1), 其, 3) 其, 6) 其, 8) 其이다.

넷째, 위(爲)자는 임정주목활자에서는 두 가지 자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1), 3), 4), 6), 10)의 爲이고, 다른 하나는 안진경체에서 쓰이는 자형인 2), 5), 7), 9)의 爲이다. 후자는 글자체의 본래 자형을 달리하여 자세가 문란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하여 관박하고 엄정한 심미적 특징을 갖도록 한 것이다.⁷⁾

다섯째, 이(而)자는 안진경체에서는 가로획이 가늘고 종획(努)의 같고리 획이 굵고 힘이 있다. 위에서 가장 안진경체의 특징이 살아 있는 것은 1) 而, 3) 而, 7) 而, 9) 而이다. 이 중 2) 而, 6) 而, 8) 而, 10) 而의 글자는 이(而)자의 획순인 一 丿 ㇇ ㇇ 而에서 마지막 종획을 왼쪽 빼침으로 처리하여 임정주목활자의 멋부림의 기교가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야(也)자는 안진경체에서 절차고(折釵股)⁸⁾의 용법이 살아 있는 글씨체이다. 아래에서 약간 위로 향하는 듯한 가로획(勒)의 필세와 종획의 같고리의

7) 俞建華, 陸紆敘 著, 郭魯鳳 譯, 『안진경 서예와 조형분석』(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2004), 171.

8) 절차고(折釵股)는 필획을 전환할 때의 용필 방법 및 그 효과에 대한 비유. 필획이 바뀌는 곳에서의 용필은 원만하면서 힘이 있어야 하고 붓털은 고르게 펴서 붓끝이 휘어지면 안 되는데, 이것이 마치 쇠로 만든 비녀의 끝이 둥글게 꺾인 것과 같은 것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필세가 안쪽으로 힘을 주어 내리다가 다시 붓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마무리하고, 세로획은 곧게 세웠으며 마지막 파임은 굵은 모양이 둥글면서 힘이 있게 처리하고 있다. 안진경체의 필의가 가장 살아 있는 글씨는 9)의 **也**이고 다른 글씨들도 형태가 비슷한데, 10)의 **也**는 마지막의 파임의 끝처리를 길게 하고 붓끝을 버선코처럼 마무리하지 않고 살짝 들어 올리는 듯한 기교를 부리고 있다.

일곱째, 어(於)자는 파임(捺點), 왼쪽점(左點 또는 撇點), 사점(斜點)을 세로로 중첩되게 운용하는 자체이다. 1)부터 10)까지 **於**의 자형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안진경이 즐겨 쓰던 어(於)자의 속자인 어(於)의 자형은 쓰이지 않았다.

여덟째, 호(乎)자는 안진경체에서 용필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는 글자이다. 빼침획, 점획, 가로획과 세로획의 균형이 잘 맞추어져 있는데, 세로획은 세로 형세의 굵은 필세로 전환하여 표현되었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6)의 **乎**이고, 다른 호(乎)들도 글자형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매우 비슷하다.

아홉째, 이(以)자는 세로획과 형세를 거꾸로 쳐드는 필획이 서로 접하는 필법의 글자로 그중 안진경체의 특징이 보이는 것은 8) **以**와 10)의 **以**의 글자이다. 3)의 **以**는 좌날(左捺) 즉 왼쪽 파임의 필세를 8)과 10)에 비해 끝까지 길게 하여 필체에 멋부림이 들어 있고, 4)의 **以**는 거꾸로 쳐드는 필획과 왼쪽 파임의 윗부분을 연결하여 행서체의 운필법을 느끼게 하고 있다.


























열 번째, 재(戔)자는 재(戔)의 속자(俗字)인데 안진경체에서도 속자인 재(戔)자가 쓰이고 있는데 가로획과 세로획 및 오른쪽 파임의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는 1) **戔**, 2) **戔**, 8) **戔**, 9) **戔**이다. 다만 오른쪽 파임획을 길게 하여 멋부림이 나타나는 것은 3) **戔**, 4) **戔**, 5) **戔** 등이다.

3.2.2 멋부림의 독창적인 글자체

임정주목활자의 글씨체는 위의 어조사 샘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안진경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능서가(能書家)로서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멋부림의 글씨들이 있는데, 이러한 글자체의 활자들을 표집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로획 또는 파임을 길게 해서 끝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듯한 기교를 부린 것들이 있는데, 칙(則), 씨(氏), 민(民), 아(我), 이(已) 등이다. 이들 활자를 <표 3>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세로획 또는 파임이 긴 글씨

구분	則	氏	民	我	已
1)	 (上-10-전-2-2)	 (上-1-후-10-4)	 (上-17-전-7-12)	 (上-4-전-9-3)	 (上-7-전-2-18)
2)	 (上-36-후-6-11)	 (上-3-후-5-5)	 (上-18-후-3-12)	 (上-10-전-1-13)	 (上-7-전-6-1)
3)	 (上-37-후-5-2)	 (上-17-전-6-9)	 (上-34-후-5-10)	 (上-11-전-3-3)	 (上-10-전-2-13)
4)	 (上-38-후-10-9)	 (上-18-후-10-11)	 (上-44-후-9-5)	 (上-13-후-9-7)	 (上-27-전-1-6)
5)	 (上-40-전-10-5)	 (上-45-전-2-20)	 (上-45-전-6-13)	 (上-32-전-2-11)	 (上-37-후-4-5)

※上-1-전-1-12(상권 1장 전면 1행 12열을 의미함)

위의 <표 3>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칙(則)자는 안진경체에서 조개패(貝)와 칼도변(丿)의 획은 균형을 맞추어 단순하고 평담하게 쓰는 것이 특징이다. 임정주 목활자의 특징은 **則**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丿’의 두 번째 획을 세로로 길게 내려 써서 마무리하고 글자획에 기교를 주어 멋을 부리고 있다.











둘째, 씨(氏)자, 민(民)자는 안진경체에서 글자의 균형미를 단순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임정주목활자에서의 특징은 氏와 民과 같이 오른쪽 파임획을 길게 하여 멋부림의 기교를 한껏 부리고 있는데, 위의 어조사 중 재(裁)의 파임도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글자이다.

셋째, 아(我)자는 안진경체의 결자 방식에서 매우 단아하고 균정미있게 필세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이다. 임정주목활자에서는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그 중 1) 我와 3) 我是 획순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에서 4번째 획을 길게 하고, 7번째 오른쪽 파임도 역시 길게 하여 다른 글자처럼 보이게 하는 기교를 뽐내고 있다.

넷째, 이(已)자는 안진경체에서 파임을 단아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임정주목활자에서는 이자는 已와 같이 파임은 둥근 필세를 길게 유지하고 마무리 획은 위쪽으로 길게 빼서 처리하고 있다.


② 안진경 서체에서 필(必)자의 획순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이며, 좌측점, 중측점, 뺄침획, 파임, 우측점의 순서로 쓰되 좌측점, 중측점, 우측점이 뺄침획과 파임이 교차하는 지점에 적절히 분포되어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파임을 굵게 하여 위를 받치는 듯한 모양으로 쓰는 것이 정통법이다. 임정주목활자에서는 필(必)자 획순의 본래 순서에 관계없이 필획의 순서를 바꾸어 만들어진 독특한 글씨체가 두 가지 계열로 나타나는데 이를 <표 4>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독특한 서법의 필(必)자 글씨체

구분	必	必	必	必	必
1)	 (上-3-前-1-2)	 (上-5-前-5-6)	 (上-6-前-4-15)	 (上-12-后-9-3)	 (上-16-前-7-17)
2)	 (上-4-前-9-4)	 (上-6-前-2-3)	 (上-19-后-6-17)	 (上-7-前-1-4)	 (上-42-前-9-19)

※上-3-前-1-2(상권 3장 전면 1행 2열을 의미함)













위의 <표 4>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번 계열의 은 획순이 좌측점, 중측점, 파임, 삐침획, 우측점의 순서로 쓰였다. 좌측점, 중측점, 우측점이 만나는 삼각형의 구도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쓰고, 파임과 삐침획은 아래쪽에 교차하여 기울어진 삼각형의 구도를 안정감 있게 받쳐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번 계열의 은 획순이 좌측점, 파임, 중측점, 삐침획, 우측점의 순서로 쓰였다. 좌측점, 중측점, 우측점이 만나는 삼각형의 구도를 반듯하게 배치하고, 중측점을 체크 표시 모양으로 하면서 파임과 삐침이 만나는 선과 일치하도록 중심을 잡았으며, 파임은 짧게 삐침획은 우측에서 왼쪽으로 길게 빼서 위의 삼각형의 구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③ 글씨를 쓸 때 여러 개의 점이 병렬하게 되면 같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몇 점을 반대 형세로 찍거나 자획의 방향을 바꾼 것은 안(顏)자, 솔(率)자 등이 있고, 락(樂)자는 부수 요(幺)에서 마지막 획을 생략해서 쓰기도 하고, 응(凝)자는 이체자로 표기한 것도 나타난다. 이러한 예들을 모아 <표 5>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안(顏)자, 솔(率)자, 락(樂)자, 응(凝)자의 샘플

구분	顏	率	樂	凝
1)	 (上-5-전-10-15)	 (下-20-전-2-9)	 (上-5-후-2-5)	 (下-25-후-10-11)
2)	 (上-6-전-1-9)	 (上-16-후-8-15)	 (上-6-전-8-13)	 (下-26-전-10-4)
3)	 (上-6-전-2-10)	 (上-37-후-6-6)	 (上-5-후-4-11)	 (下-26-전-10-13)

위의 <표 5>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顔)자는 안진경체에서는 1) 𩇛의 방식으로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임정주활자본에서는 1)의 보편적인 글자도 있지만, 2)와 3) 형태인 𩇛의 글자도 나타난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 개의 점이 병렬된 경우 한 점을 반대 방향으로 처리하여 멎을 부린 것이다.

둘째, 솔(率)자는 안진경체에서는 1) 𩇛의 방식으로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2)와 3) 형태인 𩇛은 요(攴)의 양쪽에 점을 찍는데, 왼쪽 점의 표시를 빗살무늬처럼 하여 멎을 부려서 글자의 자형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하였다.

셋째, 락(樂)자는 안진경체에서는 1) 𩇛의 방식으로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임정주활자본에서는 1)의 보편적인 글자도 있지만, 2)와 3) 형태인 𩇛의 글자도 나타난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좌측의 요(攴)에서 마지막 획을 생략해서 썼다.

넷째, 응(凝)자는 안진경체에서는 1)의 𩇛의 방식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2) 𩇛과 3)의 𩇛의 형태는 이체자 형태로 쓰였다.

4. 결 론

운호 임정주의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편찬·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이다. 노은(老隱) 임적(任適, 1685~1728)의 아들로 영조 3년(1727)에 태어나 청주의 옥화(玉華)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여주(驪州), 서울 등지로 옮겨 살다가 36세이던 영조 38년(1762)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46세이던 영조 48년(1772) 동몽교관을 거쳐 시직(侍直), 서연관(書筵官), 전생서(典牲署)의 주부(主簿), 송화(松禾)현감, 온릉령(溫陵令), 청산(靑山)현감 등을 지냈다. 학문의 연원은 조선 후기 울곡계(栗谷系)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주기파(主氣派)이며, 스승은 둘째 형인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이고, 임윤지당(任允摯堂)은 그의 누이이자 학문적인 동지이다. 그는 형 임성주의 학설인 ‘理氣同實, 心性一致’의 학설을 따랐지만 후자인 ‘心性一致’에 중심을 두어 본체론보다는 심성론에 집중되었다. 그가 교류한 인물들은 김지행(金砥行, 1716~1774), 송시연(宋時淵), 김희(金熹, 1729~1800), 박윤원(朴胤源, 1734~1799), 이상재(李象載), 송기정(宋基鼎, 1771~?), 임로(任魯, 1755~1828) 등이고, 저서는 순조 17년(1817)에 그의 아들 임걸(任杰)이 간행한 『운호집(雲湖集)』 6권 3책이 남아 있다.

2)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편찬은 임윤지당과 임정주 및 그녀의 시동생인 신광우(申光祐, 1726~1798)에 의해 이루어졌고, 간행은 임정주에 의해 이루어졌다. 임윤지당이 직접 초고본을 작성한 것은 40편인데, 임윤지당이 죽은 3년 후인 정조 20년(1796)에 임정주가 30편으로 줄였다가 다시 5편을 추가하여 35편으로 최종 편차하였고, 임정주가 제작한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상권 21편, 하권 14편, 총 35편이 수록되었고, 부록 끝에 『발문(跋文)』 2편(申光祐, 任靖周)이 실려 있다. 이 책의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및 개인소장 등에 완질본이 남아 있다.

3)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간행을 위한 목활자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인 조성자, 조성목적, 조성처, 조성시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목활자 조성은 임정주가 형인 녹문 임성주의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을 편찬·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형이 정조 12년(1788)에 돌아가시자 바로 그해부터 유고의 편차를 시작하여 7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기간에 목활자도 함께 조성하였다. 정조 18년(1794)에 임적(任適, 1685~1728)의 시문집인 『노은집(老隱集)』 4권, 부록, 합 2책과 임경주(任敬周, 1718~1745)의 시문집인 『청천자고(靑川子稿)』 3권 1책을 먼저 간행하였고, 이어 정조 19년(1795)에 그의 둘째 형 임성주의 문집인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26권, 부록, 합 13책을 간행하였으며, 이듬해인 정조 20년(1796)에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1책을 간행하였다. 목활자의 조성처는 임정주가 청산현감으로 있던 시기에 청산현(靑山縣)

관청이다. 조성시기는 문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문집의 편찬·간행과 관련된 시기를 참조하면, 정조 13년(1789)부터 정조 19년(1795)까지로 추정된다. 목활자는 조성자의 이름을 붙여 ‘임정주목활자’로 명명하였다.

4)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간행에 사용된 ‘임정주목활자’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집된 어조사 샘플 중에서 ‘지(之)는 3) **之**, 불(不)은 4) **不**, 6) **不**, 9) **不**, 10) **不**, 기(其)는 1) **其**, 3) **其**, 6) **其**, 8) **其**, 위(爲)는 2), 5), 7), 9)의 **為**, 이(而)는 1) **而**, 3) **而**, 7) **而**, 9) **而**, 야(也)는 9)의 **也**, 호(乎)는 6)의 **乎**, 이(以)는 8) **以**와 10)의 **以**, 재(哉)는 1) **哉**, 2) **哉**, 8) **哉**, 9) **哉**’에서 안진경의 필체를 근간으로 하여 그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다. 그중 어(於)자는 1)부터 10)까지 **於**의 자형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안진경이 즐겨 쓰던 어(於)자의 속자인 어(於)의 자형은 쓰이지 않았다. 이(而)자의 마지막 빼침획인 2) **而**, 6) **而**, 8) **而**, 10) **而**와 재(哉)자의 오른쪽 파임획을 길게 한 3) **哉**, 4) **哉**, 5) **哉**에서 몇부림의 기교가 나타났다.

임정주의 글씨체 중 몇부림의 독창적인 글씨체는 첫째, 세로획 또는 파임을 길게 해서 끝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듯한 기교를 부린 것들이 있는데, 칙(則)의 **則**, 씨(氏)의 **氏**, 민(民)의 **民**, 아(我)의 **我**와 **我**, 이(已)의 **已** 등이고, 둘째, 필(必)자는 획순의 본래 순서에 관계없이 필획의 순서를 바꾸어 **必**과 **必** 두 가지의 독창적인 글씨체를 구현하였다. 셋째, 글씨를 쓸 때 여러 개의 점이 병렬하게 되면 같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몇 점을 반대 형세로 찍거나 자획의 방향을 바꾼 것은 안(顏)자는 **顏**으로, 술(率)자는 **率**과 같이 썼고, 락(樂)자는 좌측의 부수 요(幺)에서 마지막 획을 생략해서 **樂**과 쓰기도 하고, 응(凝)자는 **凝**과 **凝**의 이체자 형태로 쓴 것이 나타났다.

<참고문헌>

강순애. “任允摯堂의 送序文 『拜送仲氏南歸序』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 58집(2014. 6). 91-118.

俞建華, 陸籽敍 著, 郭魯鳳 譯. 『안진경 서예와 조형분석』.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2004.

任敬周. 『청천자고(靑川子稿)』 3卷 1冊. 정조 18년(1794).

任聖周. 『녹문집(鹿門集)』 26卷, 附錄, 合13冊. 정조 19년(1795).

任允摯堂. 『운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 1책. 정조 20년(1796).

任適. 『노은집(老隱集)』 4卷, 附錄, 合2冊. 정조 18년(1794).

金炫. “雲湖 任靖周의 理氣心性論.” 『東洋哲學研究』 제14집(1993). 209-213.

한국고전번역원(2013). 한국고전종합 DB. [검색일자 2014. 7. 29.]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JO&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JO&jwId=kda_400&moId=&daId=&gaLid=kda_40005002_018&gaId=&yoId=&ilId=&leId=&NodeId=jo_k-kda&setid=1413653&Pos=0&TotalCount=6&vipyunid=kda_4008>